

제54회 신입생 워크샵 의소분팀 인수인계서

63기 장추이

제54회 신입생 워크샵 의소분팀 팀장을 맡은 63기 장추이입니다. 작년 신입생 워크샵 때는 <올모스트메인>에서 캐스트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의소분팀장으로 다시 똑같은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벌써 제가 참여한 4번째 공연이지만 의소분팀은 처음이라서 사실 팀장이 됐을 때 '아 제가 진짜 할 수 있을까'하고 많이 걱정했습니다. 공연 준비 중간중간에 여러 사건도 있었지만 다행이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요. 학기 중이라서 아무래도 공연 준비하면서 덜 신경이 쓴 부분도 있고 또 워크샵이라서 대공연에 비해 준비 과정 중에 특히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서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5주 시간 안에 소품, 도구, 의상, 화장품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의소분팀의 일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작년에 제가 공연을 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며 행복하고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에 다른 공연의 의소분팀 인수인계서를 못 찾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의상, 소품, 분장의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의상

대본을 받아서 먼저 읽고 분석해서 팀원들과 같이 한 2번 정도 회의하고 각 캐릭터의 성격을 대략 파악해서 그 캐릭터와 맞을 것 같은 콘셉트를 나열하고 그다음에 연출과 토론하며 확인해서 의상 콘셉트 확정합니다. 그리고 콘셉트를 정할 때 아무 참조 없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유튜브나 다른 SNS에서 그 작품을 했던 다른 단체나 극단 분들이 올린 공연 영상을 참고해서 의상 콘셉트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다른 공연과 완전 똑같이 의상을 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연출이 원하는 콘셉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연출이 하고 싶은 콘셉트로 하세요. 구체적인 사진과 같이 첨부해서 연출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구입하는 것보다 공연진 안이나 캐스트의 지인분에게 빌리는 건 추천합니다.

-소품

의상 준비와 비슷하고 먼저 대본을 읽어야 하고 대부분 소품은 대본 안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대본 안의 소품을 다 정리해서 연출에게 확인하고 원하는 소품은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품도 최대한 사는 것보다 직접 만든거나 빌리는 건 추천하고 사야할 경우도 다이소에서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분장

분장은 캐스트 몇 명인지 그리고 공연 내용에 따라 차이가 아주 커서 예를 들면 이번 올모스트메인은 캐스트 총 13명 정도라서 분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리허설날과 공연날 분장할 때 무조건 4명 이상의 의소분팀원 있어야 시간 안에 준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연은 분장하는 것보다 그냥 캐스트들에게 화장해주는 것이고 베이스와 셰딩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번 겨울 대공연 <분장실>의 경우는 귀신 역할이 있어서 실제로 상처를 그리거나 얼굴도 혈색 없는 귀신 분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화장이고 분장을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용할 화장품은 원래 극회에 화장 박스 하나 있는데 이번 공연 때 못 찾아서 화장품을 새로 구매했습니다. 동방에 찾아보시면 검정색 파우치 하나 있고 안에 셰딩과 브러쉬 그리고 파우데이션이 있어서 다음 공연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의 위에 다 적어놨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팀원 관리 부분입니다. 이번 공연 때는 참여 인원이 많아서 각 팀의 팀원이 아주 많아서 팀원 관리 특히 회의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계속 바꿨는데 다음 공연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먼저 팀원들의 스케줄을 수집해서 모두 가능한 시간으로 회의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서 꼭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54회 신입생 워크샵 의소분팀 팀장을 맡은 63기 장추이였습니다. 다음 공연 화이팅!!